

---

## 음악시(音樂詩)

# “예언자 ver. 2019”

깊고 맑은 언어로 사랑과 결혼, 기쁨과 슬픔, 이성과 감정 등 삶의 보편적 화두에 답하는 ‘현대의 성서’로 불리기도 하는 칼릴 지브란의 『The Prophet(예언자)』를 통해 장엄한 성서적 리듬과 새로운 운율의 떨림을 음악으로 재해석하여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예술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연결하는 기획 연주입니다.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동시대의 7명의 작곡가들은 개성 가득한 서로 다른 노래로 인류의 근원적이며 보편적인 시공을 초월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예언자』에서 영감을 얻어 이를 음악적 언어로 투영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특히, 한국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울림을 현대적 어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이 시대 우리 한국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배가 오다 (2019) \_ 홍윤경

가야금 장삼수 / 더블베이스 장린

“침묵을 탐구하는 자로서, 침묵 속에서  
어떤 보물을 찾아내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겠는가.”

침묵 속 잔잔한 바다 위, 멀리서 흔들거리며 배가 한척 다가온다. 그 흔들거림 속 전달되는 소리에 집중하였고, 그것들이 모여 물의 흐름을 만든다.



### 이성과 감정에 대하여 (2019) \_ 서유라

거문고 김은수 / 알토 플루트 승경훈

“판단력과 욕구를 집에 찾아온 귀한 두 손님으로 보고 싶네.  
그대들 역시 이성 안에서 쉬고 감정 안에서 움직이네.”

사람은 이성과 감정을 모두 지닌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로서, 이 둘의 공존을 통해 살아간다. 이러한 관계성으로부터 이 곡은 출발하며, 현악기인 거문고와 관악기인 알토 플루트의 음색들을 통해 대비와 조화, 그리고 공존을 곡에 담아보고자 하였다. 따로, 또 같이.



### 결혼에 대하여 (2019) \_ 최창석

가야금 장삼수 / 거문고 김은수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삶을 흩어 놓을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결혼에 대하여”에 영감을 받은 “가야금과 거문고를 위한 <결혼>(2019)”은 시적 이미지를 소리로 만든다.



### 대화에 대하여 (2019) \_ 김윤진

양금 최윤진 / 여창가객 이윤진

“생각은 하늘을 나는 새다. 저 멀리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다.  
그러나 언어의 새장에 갇힌다면 결코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리라.”

사람은 말과 글로 타인과 소통하나 어쩌면 말과 글로 변환할 수 없는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다. 그것들은 표현되지 못하기에 배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머물러 답답함, 안타까움이 된다. 어떤 날도 같은 날이 없듯이 우리의 반복되는 정념과 감정들까지도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구분해주는 단어는 부족하다. 양금은 가사를 담으려 하나 때로는 가사에 다 담지 못하는 무언가를 더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말과 글 너머의 무엇을 담으려 했다.

- Intermission -



### 기도에 대하여 (2019) \_ 박은경

가야금 서은영

"만일 너희의 기도가 너희 자신의 안락함만을 위해  
너희의 어두움을 허공에 쏟아내는 것이라면"

내면의 갈등과 부딪힘이 자아내는 불일치의 과정과 그에 따른 깨달음, 순응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였다.



### 집에 대하여 (2019) \_ 백자영

생황 김보미 / 첼로 오승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대의 집이 그대의 비밀을 가리게 하지 말라.  
또한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감추게 하지 말라."

집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변해준다. 그 사람의 생활양식에 따라 그 집의 구조가 확립되고, 그 곳에는 주인의 취향이 쌓여 집의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이에 이 작품도 다양한 조각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았다. 조각의 흔적들은 서로 결합하여 멜로디가 되어 후반에는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죽음에 대하여 (2019) \_ 강혜리

여창가객 이윤진 / 첼로 오승규 / 타악기 최소리

"죽음은 눈 속에서 씨앗이 봄을 꿈꾸는 것.  
죽음은 발가벗고 서서 태양 속으로 녹아 빨려 들어가는 것.  
숨이 끊김은 끊이지 않는 물결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하여 높이 오르고 퍼져서 거침없이 신을 찾는 것."

이 곡은 죽음의 의미를 묻는 첼로의 낮고 느린 질문으로 시작되어, 여창과 타악기의 주고받는 끊임없는 대화로 이어지며 점차 빠르고 밝은 음색의 호흡으로 변화한다. 마치 진도 다시래기에서 느리고 구슬픈 노래 가락이 마지막에 이르러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변하여 죽음을 축제로 승화하는 모습과 닮아있다. 죽음으로 이르는 삶의 시간들, 죄와 고통,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치고 하늘 높이 올라 번민 없이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을 예언자의 시를 빌려 상여소리의 구성으로 담아보았다.



**여창가객\_ 이운진**

-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생황\_ 김보미**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 단국대학교 국악학과 박사과정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양금\_ 최윤진**

- 양금연구회 회원
- 김병호류 가야금보존회 회원
- 용인대학교 국악과 부교수



**거문고\_ 김은수**

-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전수자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수석단원



**가야금\_ 서은영**

- 한양대학교 국악대학 박사과정 졸업
- 제16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 전통예술원 검입교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가야금\_ 장삼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제 29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금상
-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대상



**타악\_ 최소리**

- 스웨덴 칼브음악제, 이태리 파니칼레음악제 타악기 독주회
-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소리퍼커션 대표



**알토 플루트\_ 승경훈**

- 리용 고등 국립음악원 학사, 석사 졸업, 예일대학교 석사 졸업
- CTS 교향악단 수석주자, Powell사 아티스트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



**첼로\_ 오승규**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최연소 입학
-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더블베이스\_ 장린**

- 미시간 주립대학교 박사 졸업
- 백석대, 경인교대, 가천대 예술영재교육원 강사
-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 앙상블 에트비스 멤버